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3.30.(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1. 다음 회의 일정

- 4월 일정 : 4월 27일(목) 오후 4시
- 5월 일정 : 5월 31일(수) 오후 3시
- 6월 일정 : 6월 27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주시고 연합뉴스tv에서도 본부장님, 센터장님,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러면 3월 시청자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달에도 24시간 뉴스 채널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다양한 영역의 뉴스를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고유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사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실생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심층 보도를 기대합니다. 교육, 연금, 건강, 부동산, 복지, 생활물가, 인구문제 등 생활 이슈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좀 더 심층적 보도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산청, 삼척 등 지방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없어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봉 3,4억에도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사였습니다. 타사의 관련 보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보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왜 의사들이 고임금에도 지원하지 않는지, 관련 이유가 단순히 지방기피 때문인지, 아니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진료과별 의료진 수 빈익빈부익부를 현상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때는 반드시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생활이슈 보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관급 또는 주요 이슈 위주로만 보도되는 것이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활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기관 문제는 아마 3월 6일자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리포트만 보면

현상만 나열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저희가 2월 24일에는 지방 의료 현실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한 리포트가 한번 나가긴 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단발적인 리포트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은 대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시청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프리즘이라든가 스페셜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서 보도가 단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현재 연합뉴스TV 편성표는 평일의 경우 하루종일 하드 뉴스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뉴스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간 차이는 대담이 포함여부 외에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사실보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상 뉴스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할만한 일이지만, 동일한 뉴스를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그램간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홈페이지의 각 프로그램 소개만 읽어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매 시간대 마다 주요 시청자들의 특성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소프트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탐사보도 위주의 프로그램 등을 배치해서 채널 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주제별 전문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은 심층보도가 많지 않은 연합뉴스TV에서 존재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보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월 18일 방송에서는 저출산문제와 이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 등에 대해 15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을 들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다룬 바 있고, 학술연구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3월 18일 방송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주는 정보인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15분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지만 한 주제를 충분히 깊게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한 분량이기도 합니다. 18일 방송은 정부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책에 대한 분석은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한 지상파 TV 토론프로그램에 참가한 패널의 분석보다도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3월 11일 학폭에 대한 보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비록 프로그램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만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초점은 처벌과 제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가에 초점이 놓여있고, 과연 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핀란드의 경우 교육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송 외 다른 주제를 다룬 것을 보아도 접근방식이 유사합니다. 나아가 탐사보도라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방식의 기사는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의 접근 방식도 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진 한계도 명확해 보입니다. 좀 더 직접 취재를 통해 뉴스 아이টে를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방식에 가장 눈에 띄이는

것 중 하나는 단편적인 사실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보도방식과 방송뉴스매체로서의 연합뉴스TV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단편적인 사실보도는 시청자들이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뉴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쉽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3월 20일 뉴스현장에서는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재작년 4분기 이후 최고”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보를 인용해 서울시 청약 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막상 시청자들의 궁금해 할 것은 청약 경쟁률이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이 급속도로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장기적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요인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인지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는 이런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날 뉴스센터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현재의 인력난이 조선업 불황기 동안 이루어진 구조조정 탓에 근로자 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인력부족을 느낀 조선업계가 인력보충 시도가 별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인력보충이 쉽지 않은지, 이를테면 낮은 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탓인지 등, 아니면 숙련 노동자의 공급 부족인지 등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20일 라이브투데이에는 마잉주 전 대만총통의 중국본토방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방문이 대만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만 설명할 뿐,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재, 마잉주 전 총통의 중국방문이 갖는 정치외교적 의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해당 뉴스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맥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간추린 사실만 보도하는 것은 ‘불친절한’ 보도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프로그램별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별성을 주는 데 있어서 비용과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률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뉴스 프로그램을 리포트와 단신, 대담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사실 비용 면으로 보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시청자들이 몇 시간 계속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뉴스가 필요해서 우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20~30분 정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뉴스휠 방식으로 비슷한 뉴스를 계속 돌리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뉴스프로 타이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일종의 특화 뉴스, 사건 특화 뉴스라든가 정치 특화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특화 뉴스는 아주 품을 많이 들어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종합 뉴스에 비해 시청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일반 뉴스를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엉뚱한 뉴스하네 이라고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채널의 경우 시청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의 특화뉴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그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뉴스프리즘을 심층 보도라기보다는 집중 보도 정도로 부르고 싶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 리포트 한 3개 정도 붙여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형식이 일반 리포트 한 개 나가는 것

에 비해선 조금 더 심층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예전 jtbc의 '스포츠라이트' 이런 것처럼 본격적인 저희도 시사제작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아직까지 여건이 미비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라이트' 같은 것 만들려면 보통 한 아이템에 한달 정도 준비를 한답니다. 저희 뉴스프리즘은 리포트 3개 만드는데 일주일 이내로 준비합니다. 준비에 있어서 심층성을 비교하기 어렵죠. 그런 점들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리포트에 대해 해주신 지적은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리포트라는 형식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기자가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꼭 들어가야 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분석은 한두 문장이나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허인순 위원

- 저는 남들이 안보는 프로그램만 보게 되는데 '바로보는TV 옴부즈맨' 590회, 2023년 3월 19일 방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잘 안 보는 시간대에 배정 돼 있고 하던데 저는 시청하면서 평가원도 나오서 가지고 보도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대학생 리포터가 진행하는 '캠퍼스 TV리포트' 코너가 있던데 제법 시간이 좀 길게 주어졌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어떤 시각으로 젊은 대학생 리포터가 취재를 한 건지 그 코너에는 맞지 않는 그런 구성, 내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주 주제는 몽골여성의 한국살이, 육아 그냥 일반적인 보도된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를 구성하신 배경에는 젊은 대학생 리포터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제일 MZ가 제일 대세잖아요. 그들의 우리 연합뉴스tv를 보면서 좀 예민하게 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그렇게 기획을 좀 해주시면 이 코너가 좀 더 아주 빛이 날것 같아서 아쉬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조성진 관련 조성진 '헨델 프로젝트' 빌보드 클래식차트 정상 / 2023.03.17. , 조성진의 헨델 곡 연주 영상이 중간에 끊김, 짧은 영상이라도 클래식이든 음악 관련 영상은 부드러운 부분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염두에 두고 편집을 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안정감이 느껴질 듯 합니다. 짧은 영상이라도 풍미를 느낄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전체적인 뉴스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바로보는TV 옴부즈맨'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캠퍼스TV 리포트' 코너, 몽골여성의 한국 사회 육아 주제가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옴부즈맨 성격에 맞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부장에게 유의하자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헨델 프로젝트 리포트도 클래식 음악에 관한 리포트를 하면서 7~8초 정도 음악을 좀 여유 있게 들려줄 수 있는 편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담당자뿐만 아니라 취재 기자도 편집의 지침을 전달할 때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관련 리포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잘 반영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날씨와 관련된 음악과 SNS상의 화두가 함께하는 일기예보, 단순한 예보 방식보다 편안하게 들리고 중독성이 있어 챙겨보게 되는 매력 있음. 3.22일 일기예보 '날씨톡톡'에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란 노래와 함께 최근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 소식을 전했고, 3.21일 멜로망스의 '질어져'라는 노래를 통해 봄기운이 점점 질어져 가는 춘분의 날씨를 전함. 3.16일엔 꽃샘추위가 찾아오자 이스트코너의 '봄이니까'를 내보내며 "봄이니까 바람결도 견딜만하지 않느냐"며 일기예보를 전하기도 함, 연합뉴스TV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20대에 방영되는 '날씨톡톡'은 그날의 날씨와 관련한 음악과 SNS상의 화두를 묶어 예보해 주고 있음. 이런 예보 방식은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편안하게 오전을 마감하는 느낌을 주고 점심식사 가는 길이나 산책 등 오후 외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날씨 소식과 날씨에 관련된 음악을 듣다 보니 기분 좋은 중독성도 있음. 일기예보가 단순하게 날씨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더해 시청자와 함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됨. 현재 오전에 한 번만 진행되는 날씨톡톡을 오후에 한번 더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함께 전함.

- 연합뉴스TV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상 불편함 느껴,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거나 과거 뉴스를 검색해서 봐야 하는 시청자를 위해 앱을 통해 뉴스 서비스하고 있음. 주요 카테고리는 '최신' 뉴스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 8개 분야로 나눠 제공하고, 분야별 뉴스는 첫 페이지에 20개의 헤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더 많은 헤드라인을 보려면 '더보기' 기능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뉴스를 본 후 빠져나오면 '직전 페이지'로 복귀하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로 복귀해 다시 원래 보고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찾아가도록 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음. 따라서 더보기 기능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헤드라인을 검색해 뉴스를 본 후 빠져나와도 '당초 보던 페이지'에 머물도록 하여 이미 앞에서 살펴본 헤드라인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 아울러 키워드를 통한 뉴스 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지만 정렬 방식에 '최신' 순과 '정확도' 순만 있어 '과거' 순 혹은 '오래된' 순은 없는 상황임. 시청자 입장에서 가끔 검색된 뉴스를 과거 뉴스부터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검색어 정렬 기능에서 빠져 있다보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또한 연도별 검색도 '연도'나 '월' 검색기능이 없어 일일이 '월' 단위로 1개월씩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사소하지만 앱의 기능은 시청자 친화적이어야 함. 실시간으로 보는 뉴스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가 찾아 보는 뉴스에도 정성을 다하는 연합뉴스TV를 기대해 봄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일기예보 '날씨톡톡'은 몇년전에 기상캐스터들이 아이디어를 내 직접 원고를 쓰고 선곡도 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일기예보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좀 더 참신한 형식을 도입할지 기상팀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앱이나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약합니다.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경쟁사들에 비해 TV시청률에서 앞서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사실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담당부서인 뉴미디어사업부에서 개선을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완료될

겁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신석 위원

-<2023.03.17 [연합뉴스TV 출발600] 뉴스보도 : "사채·성매매까지"...10대로 파고드는 불법도박> 청소년 문제에 있어 불안을 조장하는 적절치 못한 멘트와 공영방송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균형 잡히지 않는 보도자체, "마약에 이어 불법 인터넷 도박문제가 10대 청소년 사이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와 성매매 등 2차 범죄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는데요."라는 앵커의 멘트로 뉴스보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앵커의 멘트를 듣고 있는 초중고 527만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까요? 요즘 학교가 신성한 배움의 장이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이 난무하고 폭력이 자행되는 심각한 곳으로 변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을 불안해서 학교에 보내도 될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재형 기자의 도박청소년들을 취재 후 "어른들의 범죄 수익 구조는 교실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돈을 훔치는 건 예삿일, 성매매와 강도 등 강력범죄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라는 멘트로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자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에서 배움의 장인 학교 교실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도둑놈, 강도, 성매매자, 강력범죄자로 만드는 보도나 멘트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600'의 "사채·성매매까지"...10대로 파고드는 불법도박의 뉴스 보도는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 대중에게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만일 기획취재를 하였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이기에 좀 더 자극적이지 않는 멘트와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관계자 취재 등을 함께 보도하여 균형 잡힌 보도를 하였다면 시청자들이 청소년들의 문제와 학교 교육현장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과 정부 차원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과 정책수립, 교육예산 투입 등 초중고 학생들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영방송 연합뉴스 TV가 자라나는 청소년문제와 교육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적절한 멘트 사용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보도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금번 출발 600에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안과 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만을 남기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못한 보도였다고 판단된다.

- 건의사항으로 공영방송 채널 연합뉴스TV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 사건사고나 청소년들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도 보다는 교육현장의 순기능적인 부분에 청소년, 학부모, 일반대중들이 알고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달라지는 교육정책이나 각종 교육 분야의 지표 통계 현황,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교육의 사례, 국내외의 교육정책 비교 등과 같은 발전적인 보도를 통해서 청소년 교육에 국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꿈과 희망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찾아 갈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사건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담당 부서에서도 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데스크링 과정에서 걸러

질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언론 보도가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시정을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견제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부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도하면 사회가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찬 것처럼 왜곡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복돋는 보도도 어느 정도 잘 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문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신세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건기 위원

- 난방비 인상 등 보도, 2.23일자 뉴스'난방비 폭등'... 경기도, 중산층도 지원추진 보도에서 난방비가 인상된 것을 난방비 폭등으로 자막 처리하였으나 기자는 여러 차례 난방비 폭탄이라고 언급한 바, 표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난방비 인상에 따른 시민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 부족만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시민참여나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 지난번에 과학전문분야 기사를 뽑고 계신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싶은지 여쭙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관련 코너 및 편성 신설,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간단히 뭐가 있다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깊이 있게 분석,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이슈는 뉴스를 보도할 때 과학 뉴스로 5분~10분 정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아침 10 뉴스와 저녁 7시 뉴스 때는 과학정책, 핵심기술 분야별로 편성하여 보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다룰 때 관련 과학자의 인터뷰와 증거를 반드시 체크하여 사실 확인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성과나 이슈를 다룰 때, 보도자료의 연구 결과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고, 어떤 성과이고,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집중해서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별도 편성이 어렵다면, 3.5일자 [뉴스초점] 정부,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예고... 로봇 시장 전망은? 같은 과학관련 뉴스초점 형식의 보도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난방비 폭등 관련 리포트는 폭등하고 폭탄하고 같이 섞어서 쓰고 그랬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둘다 엇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폭탄이든지 초토화라든지, 집중 포화라든지 이런 전쟁용어는 가급적이면 리포트에서 쓰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고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제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리포트에서는 심층적인 내용을 넣지 않고 현상만 나열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 다음날 저희가 리포트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슈가 있을 때 현상과 대안을 붙여서 리포트하도록 하고 당일 그런 처리가 여의치 않더라도 다음날이나 빠른 시일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대안 위주의 리포트도 방송하겠습니다.

- 과학전문기자는 저희가 채용했고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상, 과학 쪽 기자가 3명이 되어서 말씀하신 고정 프로나 코너의 운영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볼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현장의 재구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 대책은? 2023. 3. 22.,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운전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는 기사는 필요합니다. 앵커 등의 멘트가 없이 영상과 자막으로만 전달하면서 관련 자료들은 조금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편집하였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로서는 이 기사를 다 본 뒤에, 그 세부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이 없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많이 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일견 언론사가 의도한 바대로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여러 번 보게 되면, 역주행 사고의 경우 노인이 교통사고를 냈다기보다는 치매환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노인이 아닌 사람들도 낼 수 있는 사고라는 점 등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료 등이 조금은 졸속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입니다. 덧붙여, 노인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 노인들은 노인의 기준은 적어도 70세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렇지 않아도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감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노인이라 하지 않고 65세 이상 운전자를 자의적으로 고령 운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연세가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현장의 재구성'은 영상 구성 형태입니다. 리포트나 대담, 단신 같지 않아서 오디오가 없고, 영상과 자막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형식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하면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도식적인 내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면 사고 나니까 무조건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면 부적절하죠. 오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현장의재구성] 끊이지 않는 경비원 수난...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3/21), 지난 15일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되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을 중심으로 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다룬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생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열거하여 다시 한번 '갑질' 근절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 유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터질 때마다 반복됐던 사회적 공분과 정부의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①'정부의 근절 대책(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②근절 또는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고, ③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보도 방식에 따라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 (해당 사안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공동주택의 '간접고용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아파트 경비원 간접 고용의 구조적 문제점은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아니지만 3월 26일 사회부 리포트에서 조금 다루긴 했어요. 그래도 '현장의 재구성' 보신 분이 이 리포트를 같이 보시는 건 아니니까요. 가급적이면 '현장의 재구성'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 지난 한달 동안 평일 낮에 편성된 뉴스센터13의 '경제읽기'라는 코너를 유심히 살펴봄. 연합뉴스TV에서 경제분야 이슈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주는 유익한 코너라고 생각함. 실제 SVB파산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 적절성,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와 비교하는 등 시청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해당 이슈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됨. 정부가 발표한 산업클러스터 단지 구성과 관련해서도 클러스터라는 개념부터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부발표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정책 발표의 내용과 의미까지도 쉽게 파악이 가능했음. 경제나 산업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청자 많지만 이해도가 부족해 뉴스를 어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임. 이런 형태의 심층보도는 청장년층이나 기업인들의 시청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경제산업뉴스 접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하면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함.

- 최근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이슈. 현재 주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 분기, 연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주요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서는 경제읽기, 배달잇슈도 활용해 잘 보도했음. 다만, 정부 발표 당시에는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3/6, 뉴스센터13>, '52시간제 개편 추진...주 최대 69시간 근무' <3/6, 뉴스워치> 등의 헤드라인으로 노출했는데,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 텍스트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다른 매스컴에서도 유사한 텍스트 노출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왜곡없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데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주말에 경제·산업뉴스 코너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주 최대 69시간' 자막은 사실 언론적 표현이죠. 언론사라면 대부분 이런 제목 내지는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사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제목이나 자막이 제일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고 있구요. 왜곡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론적 감각과 실체적 정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잘 조정해보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김건희 여사,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공평한 대한민국 만들자"(3.9), 매년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로 여성의 경제·정치·사회적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에서 유래된 이 날은 1975년 UN이 3월 8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명 발표나 행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올해 제39회를 맞이할 정도로 나름 연혁이 있는 날이자 법정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하필 이 날에는 정계의 최대 이벤트인 여당의 전당대회가 겹쳐 있었다 보니 기념일 행사가 주목받기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영부인의 참석으로 수많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있던 반면에 방송은 거의 뉴스로 다루지 않았는데 연합뉴스TV는 다음날 오전 5시 뉴스를 통해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영부인의 메시지, 행사 주최기관, 지진 피해로 위험에 처한 튀르키예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복구 지원 강조 등 핵심적인 내용을 동정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영부인의 참석으로 영부인 단독 샷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와 달리 연합뉴스TV는 주최기관장, 정부 인사 및 국내외 주요 내빈들의 모습은 물론 퍼포먼스 모습까지 담긴 다양한 구도의 촬영 사진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30초 남짓한 시간에 담백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소개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 전후로 《북한, 여성의 날 맞아 "시부모 잘 모시고 자식 많이 낳아야"》, 《한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선진국 꼴찌》 등 여성의 날 관련 뉴스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연합뉴스TV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를 잘 조명한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공영언론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호평합니다.

- [뉴스프리즘] 결혼도 출산도 '손사래'...수십조원씩 밀빠진 독에(3.19),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했던 언어 중 성차별 의미가 담긴 언어가 평등한 의미로 담긴 다른 언어로 바뀌어 사용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저출산'과 '저출생'은 자주 접하는 어휘일 것입니다. 정부가 '언어 성평등'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저출생 어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저출산은 성차별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은데다 대중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저출산 어휘를 친숙해하고, 저출생 어휘를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관과 실천 현장에서까지 두 어휘를 혼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론 입장에서 두 어휘에 대한 용례를 뉴스로 보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언론보도를 대강 살펴보다도 '저출산' 어휘 사용을 꾸준히 보도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의외로 많아 놀랐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에서 용례를 체크해 보니 저출생 어휘를 사용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의견이나 조사·연구 결과 발표 등 주체자 입장에서 저출산 어휘를 표현하는 내용을 다룰 때는 가급적 이에 맞추어 보도하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연합뉴스TV가 공영언론으로서 정부의 '언어 성평등' 정책 추진 사항을 국민에게 충실히 인지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가 정부와 국민, 즉 시청자의 중간 입장에서 최대한 양측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시대가 바뀌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용어들이 안 맞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저출산, 저출생도 그런 예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부도 잘 안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민한 성감수성을 갖고 언어 성평등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갖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연합뉴스TV 시청해 보셨다는 게 말씀한 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사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룰에 따라서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잠시 말씀해 주셨습시다마는 그래도 조금 궁금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자 보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평을 하면 추승호 보도본부장께서 회사 측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한 것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합니다마는 회사 내에서는 이 시청자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평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 보충을 부탁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일단 회의전에 질문지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지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내 부서장이 1차 답변안 준비를 합니다.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서장은 알게 되지요. 이후 제가 그 답변을 보고 미비한 점들을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장에게 문의해서 2차 답변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한 내용은 회의록으로 만들어 사내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이런 3단계 처리를 거치고 있어서 부서장뿐만 아니라 TV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우리가 이 회의에서 면대면으로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연합뉴스TV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달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끝)